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와 제26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헌신 감사합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보은협의회와 사회복지대회
도지사 표창 등 유공자 56명 포상·홍보부스 운영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와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구왕회)가 공동 주관하고,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후원하는 제26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가 20일 보은 배틀공원에서 개최됐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충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상섭 충청북도의회장,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유관기관 단체장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5년 보은 대추 축제' 행사장 내에서 진행돼, 참가자들이 축제의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기념식은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사회복지비

전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4명), 충청북도지사 표창(18명), 충청북도의회 의장 표창(11명), 보은군수 표창(4명), 보은군의회 의장 표창(2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표창(1명),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표창(12명), 미래복지개발원 이사장 표창(4명)이 수여됐다.

이외에도 보은군 내 사회복지시설·기관이 참여한 홍보부스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참가자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기관별 활동을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유응모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헌신과 현장 노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시설·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해 맞춤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왕회 회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헌신이 보은군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며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직접 도움과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사회복지자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충북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와 함께 지난 1일 '제102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제102회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심리적 계약 향상방안 모색
향후 연구·정책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사례·전략 담아야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는 1일 충청북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와 함께 '제102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충청북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계약 향상방안'을 주제로, 종사자들의 근무 만족도와 조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제선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수현 수석연구위원, 다하주간이용센터 최은희 원장,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오영환 부장이 참여했다. 좌장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이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제선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보상체계 확립, 경력개발 체계 강화, 평가의 공정성 제고, 복리후생과 심리적 안전망 강화, 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심리적 계약은 단순한 조직관리 개념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종사자가 신뢰받는 조직만이 이용자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으며, 충북형 복지현장의 미래는 '사람'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정수현 수석연구원은 “종사자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지역 복지 현장의 핵심 기반 인력”이라며 “종사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안

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 사회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원장은 “충북 지역 종사자의 심리적 계약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의 연구와 정책은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 사례와 전략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부장은 “종사자의 심리적 계약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인사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을 주관한 유응모 회장은 “오늘 포럼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소중한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종사자들의 심리적 계약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관한 안태승 회장은 “협의회 지원으로 연구부터 포럼까지 도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종사자 중심의 정책 환경 조성과 지역 복지 현장의 신뢰 구축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며 마무리했다.

관련 내용 6면 참조



충북도는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4일 제2차 발달장애인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북도, '제2차 발달장애인 기본 계획' 수립

충북형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

충북도는 발달장애인 전문가 및 자문위원, 시군 담당자,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2018년 7월 제정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수립된 제1차 계획(2020년~2024년)을 바탕으로 제2차 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하는 것이다.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대원경영연구소는 지난 4월 용역 착수 이후 도내 발달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면접조사·FGI(Focus

Group Interview)·웹서베이 등의 방법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이 보장되는 충북'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생애주기별 욕구특성 기반, 당사자 욕구 및 인권보장 기반, 일상적 삶의 영역과 자립생활 기반, AI 활동 기반 디지털 복지 환경 조성)과 18개 중점과제, 38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충북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도민 '맞춤형 복지정책' 제도적 토대 마련

10월 도의회 임시회 제·개정안 17건 통과 내달 중 공포 시행 예정
인공지능부터 대상포진 예방까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등 강화

충북도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들은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제정 4건, 개정 13건으로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건강 증진과 고령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인구, 경제 등 분야에서 개정된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다자

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초·다자녀가정을 다섯 째아 이상 자녀 양육 가정에서 빚쟁이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 여성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다자녀가정 양육 지원 강화 및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공공부문의 차별적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북도 현황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충북의 현황 정책이 현황자 예우 및 지원까지 포괄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인 현황 참여를 촉진하여 도민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충청북도에 조성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구축·운영·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인물사진은 샘플 이미지입니다

장애인생산물 구매는 또 다른 후원입니다.

구매문의 충청북도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043-238-4577

CAVRD 충청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 내년 초 개원

재공고 끝에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서 1곳 선정

괴산군은 5년째 추진 중인 군립 치매전담요양원이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군립 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A업체가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결격 사유 검토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하는 대로 위·수탁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개원 예정 날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다.

군은 지난 6월 민간 위탁업체 1차 공고를 진행해 지역 의료기관 3곳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7월 열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모두 탈락하자 지난달 재공고했다.

송인현 군수의 공약인 군립 치매전담요양원은 사업비 76억원이 투입돼 괴산을 동부리

일대 1868㎡ 부지에 4층(지하 1~지상3층, 584㎡) 규모로 지어졌고, 2023년 7월에 착공해 2년 뒤인 올해 6월 준공했다.

1층은 요양보호사실, 목욕실, 자원봉사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이 들어섰고, 2·3층에는 각각 치매전담실 6개,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등이 조성됐다. 입소 정원은 30명, 근무 인원은 20여 명 정도다.

군립 치매전담요양원은 고령화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되어 지역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전문 돌봄시설로 운영된다.

앞서 군은 2021년 초 사업비 33억원을 들여 문광면 광덕리 4000㎡ 면적의 부지에 지상 2층(1120㎡) 규모로 지으려고 했다. 준공 예상일은 2022년 상반기였다.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 조감도.

그러나 송 군수 취임 후 실시 설계 등을 거치며 2022년 9월 부지 변경이 이뤄졌다.

군은 기존 부지가 상하수도·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이 전무해 토목 공사비가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점, 위치가 산속 깊어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33억원이었던

사업비는 설계 변경, 자재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76억원까지 뛰었으며 준공도 3년 미뤄졌다.

군 관계자는 “한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요양원 개원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영동사랑상품권 총 1000만원… 5년 걸쳐 분할 지원

영동군은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가운데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부부당 총 1000만원으로 영동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5년에 걸쳐 분할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부부가 청구서류를 지참해 주소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영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 임신부터 출산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

이재영 군수 간담회… 불편사항 의견 제시



이재영 증평군수가 10일 보강천 스마트쉼터에서 임신 중인 군청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증평군은 20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

전부터 출산·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임기 여성과 남성에게는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난임 부부에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출생아 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임신제·철분제 무료 제공과 함께 출산·태교 교육, 산모 체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의 산부인과 진료 교통비(단체아 50만원·다태아 100만원)를 지원하고,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과 ‘출산육아수당’(6년간 총 1000만원)을 지급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최대 1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유축기 대여, 영유아 건강검진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으로 출산 이후에도 촘촘한 돌봄이 이어진다.

군은 또한 보강천 스마트쉼터 내 임산부·영유아 전용공간 조성, 임산부 대상 ‘여름 온(ON)돌봄 배송 서비스’ 운영 등으로 임신·육아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군은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보강천 스마트쉼터에서 임산부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재영 군수와 임신 중인 직원들이 참여해 현장의 불편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증평군 ‘증평형 행복돌봄’ 비전 발표

아동·노인·장애인·복지 사각지대까지 지원 강화

증평군은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증평형 행복돌봄’ 비전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군은 이날 돌봄나눔플러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돌봄을 개인의 책임에서 지역 사회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끄는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증평군은 아동 돌봄 분야에서 행복돌봄나눔터 9곳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생활밀착형 돌봄망을 구축했으며, 재가 돌해 개소나 돌봄나눔플러스센터

를 ‘돌봄 허브’로 운영 중이다.

2026년 완공 예정인 행복돌봄센터(67억원)와 숲속 아이 미니 놀이터, 우리 동네 행복 놀이터 등 실내외 돌봄 인프라도 확충해 아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 돌봄은 ‘증평형 노인 돌봄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

온 마을돌봄센터 시범 운영과 창동 개나리 어울림센터 개관으로 교육, 여가, 돌봄, 커뮤니티를 통합 제공하며,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해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한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활성화, 치유형 마을 공동체 조성, 재가 돌해 개소나 돌봄나눔플러스센터

장애인 돌봄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과 장애인 지역 사회 통합 지원센터 설립, AI·IoT 기반 스마트 자립 체험 홀 도입, 디지털 플랫폼 ‘증평안애(安愛)’ 운영, ‘달리는 이동복지관’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 돌봄은 AI 기반 신청 시스템, 위기 알림 앱, 복지멤버십 제도 도입으로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집배원 등과 협력해 신고·연계 체계를 강화한다.

이재영 군수는 “돌봄은 복지를 넘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힘”이라며 “증평형 돌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은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중복 ‘첫 시행’

전국 세 번째 도입… 연령 제한 없는 자동 가입

보은군이 충북 도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도입,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발달장애

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로,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미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제도는 충북에서 최초, 전국적으로도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특히 보은군은 타 지자체와 달리 연령 제한 없이 전 연령층 발달장애인을 일괄 가입시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보은군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장 자격은 자동 해지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최대 3000만원(자기 부담금 2만원), 상해후유장해 1억원, 골절진단비 30만원, 폭력

상해 10만원 등이며, 개인 보험이나 타 제도와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0월 1일부터이며, 군이 매년 단체보험 형태로 갱신할 예정이다.

최재형 군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보은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옥천군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첫불 지피

성금 전액 취약계층 지원

옥천군은 겨울을 앞두고 충청북도 전역으로 이어질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순회 모금 캠페인’이 첫 막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옥천군 통합복지센터 1층에서 열린 첫 행사에는 사단법인 징검다리와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으며, 각계의 후원과 언론의 관심 속에 나눔의 온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됐다.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매년 겨울 소년·소녀가장,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등 난방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이웃사랑 캠페인이다.

이번 모금을 통해서 모인 성금은 전액 관내 취약계층에게 연탄과 난방유로 지원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충북 순회 모금의 첫 출발을 우리 군이 맡게 되어 뜻깊다”며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옥천군은 재작년보다 32% 증가한 1956만원을 모금해 연탄 및 유류를 사용하는 61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옥천군은 ‘2025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순회 모금’의 첫 모금을 진행했다.

군은 올해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충청권 장애인 콜택시 통합예약 시작

국토부, 대전·세종·충북 어디서나 이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중증 보행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현재 중증 보행장애인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회원가입한 후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해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이용 희망 지역의 이동지원센터마다 회원가입과 승인이 필요해 새로운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하려면 매번 회원가입·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동지원센터마다 유선 번호도 달라 이용에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한 번의 가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지난해 말 구축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전·세종·충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에서 통합회원 가입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세종·충북 전체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전·세종·충북 이동지원센터 회원이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을 원할 경우 기존 가입센터에 통합회원 신청서와 증명



대전광역시에서 운영중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서류를 제출하거나 누리집 및 앱을 통해 통합회원 신청을 하면 된다.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중증 보행장애인 4만 8000여 명뿐 아니라 타 지역 거주 장애인도 통합예약시스템에 가입하면 시범사업 지역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에는 원번호 통합

예약 전화번호나 누리집·휴대폰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해 지도 기반으로 출·목적지와 이용일시를 선택하면 즉시 배차명뿐 아니라 타 지역 거주 장애인도 통합예약시스템에 가입하면 시범사업 지역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에는 원번호 통합

급할 때 아이 맡기고, 산모·태아 질환 보장

행안부 '복지멤버십·시간제보육·엄마보험' 서비스 선정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임산부의 날'이 있는 10월을 맞아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복지멤버십은 복지서비스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이다.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 아동수당, 에너지 바우처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84종뿐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제주) 등 지자체 복지서비스 45종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복지포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

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의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독립반(전담 교사와 함께하는 6~36개월 미만 영아 전용), 통합반(기존 정규 보육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6개월~2세 미만)으로 운영된다.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아이사랑 앱에서 자녀 등록을 먼저 한 뒤 원하는 날짜와 시간, 시설을 선택해 온라인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아이를 맡길 때에는 기저귀, 물티슈, 여벌 옷, 분유 또는 이유

식, 가제 손수건 등 개별용품과 국민행복카드,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용 내역과 잔여 시간은 아이사랑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산모의 임신 질환(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보험으로, 심사가 갹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원(출생부터 10세까지),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원(임신 후 최대 10개월)이 지급된다.

긴급복지지원 4600억 '내년 더 늘린다'

2년 연속 증가... 내년 5000억 돌파 예상

보건복지부는 '2024 보건복지 백서'에 실린 긴급복지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 총 긴급복지지원 건수는 49만 6535건,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지원금액은 4600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작년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저

소득층에게 지원된 긴급복지 지원금액이 4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생활비 등을 제공

하는 제도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부문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금액은 2021년 4193억 9500만원에서 2022년 3432억 4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2023년 4216억 3100만원, 2024년 4600억 1000만원 등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내년도 긴급복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552억원 늘어난 4053억원을 편성했다. 지방비까지 더하면 총 지원금액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긴급복지지원은 본예산으로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쓴 적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시군구 간, 시도 간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라며 "이 정도 규모면 내년에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충북 의료비후불제 경기도·서울시 도입

경기도 사업 도입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충북 의료비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해 지난 16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북도 보건정책과 한찬오 과장이 주

제 발표자로 나서 충북의 의료비후불제 운영 성과와 성공 요인을 공유했으며,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도입 방향과 지역별 적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비후불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고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의료복지제도다.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암, 골절 등 총 14개로, 도내 13개 종합병원과 치과·병·의원 등 296곳이 참여하고 있다. 2023년 1월 충북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10월 기준 누적 이용자는 2102명에 달하며, 시행 3년 만에 2000명을 넘어섰다. 대상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851명, 65세 이상 776명, 장애인 250명, 다자녀가정 112명, 국가유공자 82명, 차상위계층 27명 등이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1596건)가 가장 많았고, 치아교정(147건), 척추(110건), 슬관절(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입 3년 차인 올해, 융자금 미상환율이 1% 미만으로 집계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충북도는 앞으로 지원 한도를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복지부, '모바일 행복이음' 전자서명 도입

복지 현장서 상담·신청 원스톱 서비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9월부터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하여, 국민들이 현장을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

사 시에 태블릿을 활용해 복지대상자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부 시군구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말부터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행복이음의 도입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에 별도의 서류 준비와 사무실 복

귀 후 상담내용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추가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은 개선하였으나, 전자서명 등 일부 기능 미비로 현장 접수가 어려워, 원스톱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모바일 행복이음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전자서명 도입, 신청서 작성 등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노인일자리, 만족도 높지만 사고도 증가

안전사고 4036건... 4년새 2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시된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의 89.2%가 '만족'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자 대다수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사업 만족도가 높았지만 관련 안전사고는 4년새 2배가 늘어, 운영상 취약점

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만족 응답은 72.8%에 그쳤는데 3년새 20%p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7%에서 0.8%로 낮아졌다. 사업 참여 전후 변화를 보면 작년 기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응답이 91.8%로 가장 높았다.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됐다(89.9%)',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89.1%)'는 반응도 많아, 노인일자리 사업이 경제적 보상

을 넘어 사회·심리적으로도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 지표는 크게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상보험 등이 승인된 안전사고 인정 건수는 2020년 2048건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4036건으로 4년새 두 배 가까이(97%) 증가한 것이다. 작년 전체 사고의 85% 이상(3457건)은 '공익활동사업'에서 발생했고, 부상 유형은 '골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축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괴산군노인복지관은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괴산군노인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첫 운영

오는 12월 19일까지 매주 3회 진행
교육·체험 통해 삶 성찰·관계 회복

괴산군노인복지관(관장 황지연)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

원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며, 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주 월·수·금 주 3회씩 오는 12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웰다잉 교육, 영상자서전 촬영, 전통 한지 수의 제작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

닌 삶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긍정적 삶의 인식과 관계 회복을 도모한다.

특히, 22일에는 연풍한지체험박물관에서 전통 한지로 수의를 직접 제작하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괴산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 한지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지연 관장은 “웰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기 위한 여정”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긍정과 가족·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웰다잉 프로그램 참여 및 문의는 괴산군노인복지관(☎ 043-834-3411)에서 가능하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꿈나눔카페 ‘북부랑’ 개소식을 개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꿈나눔카페 ‘북부랑’ 개소

취업 취약계층 직업 훈련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북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허성희)은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단의 지원을 받아 주민 소통을 위한 공유공간 ‘꿈나눔카페 북부랑(甕)’을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카페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각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이사장과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대전교구

장 김호욱 디도 주교, 청주시 관계자, 시의원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김정각 이사장은 “북부랑 카페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의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희 관장은 “북부랑 카페가 우리 지역의 공유와 성장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카페 개소를 통해 지역주민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취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인식개선 캠페인

위탁부모 모집·제도 홍보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장화정)는 지난 24일 청주북지페스티벌에 참여해 문암생태공원 일원에서 지역주민 약 290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충북도내 복지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한 공동행사로, 시민들에게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위탁

부모 모집을 홍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화정 관장은 “충북도내에서 진행되는 뜻깊은 행사에 동참해 가정위탁제도를 적극 알릴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이 위탁부모 활동에 관심을 갖고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에도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주민 약 290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 방임, 빈곤 등의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행사에 참여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연말 가족행사 ‘복적’

공연·체험·먹거리 풍성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도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유대감과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연말 가족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시장’을 콘셉트로 기획되어 공연, 체험부스, 게임부스, 다양한 먹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충청북도와 음성군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준비한 연극 ‘오즈의 마법사’,

난타교실, 건강체조 공연이 큰 호응을 얻으며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지원하는 충북형 최종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인식개선 발표회도 함께 진행됐다. 해당 사업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연주단으로, 첼레와 우쿨렐레 연주를 통해 장애인식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샌드아트, 타일 데코스터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와 풍선터트리기, 공 던지기 등 게임부스가 운영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음향업체 ‘사

운드솔루션’의 후원으로 스피커(ALTO TS108C) 2대를 무료로 대여받아, 보다 풍성하고 생동감 넘치는 음향 속에서 진행됐다.

또한 한국예술인협회 음성군지회 박준혁 지회장이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무대 설치를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주어,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전호찬 관장은 “사운드솔루션과 박준혁 지회장의 협조 덕분에 더욱 완성도 높은 행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장배 바리스타 챔피언십 성료

역량 발휘·자기계발 지원

옥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황명구)은 22일 복지관 오월에카페에서 ‘제1회 KEPCO(옥천지사)&MCS 주식회사와 함께하는 옥천군장애인복지관장배 바리스타 챔피언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전력공사 KEPCO(옥천지사)와 MCS 주식회사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지역 내 장애인의 전문 역량 발휘와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관심과 참여는 장애인의 삶을 응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대회는 10월 15일 예선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특수학급 재학생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옥천군장애인복지관장배 바리스타 챔피언십대회’를 개최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8명이 참가해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메 2종의 음료를 선보였다. 이 중 8명이 본선에 진출해 22일 오월에카페에서 최종 경합을 펼쳤다.

예선은 충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바리스타실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본선은 복지관 오월에카페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긴장과 설렘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커피

를 선보였다. 심사 결과, 1등(30만원), 2등(20만원), 3등(10만원)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이, 4등 2명에게는 상장과 각 5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황명구 관장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진천군청년센터, 자격증 응시료 지원

진천군청년센터(센터장 황희연)는 10월부터 청년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어학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기본, 심화), 국가공인자격증 등 다양한 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하며, 자격증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운전면허시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진천군청년센터 공식 블로그(blog.naver.com/jcyouthcenter)와 SNS(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매달 20일까지이며 12월은 10일에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충북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가 지난 1일 제102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하여 좌장과 주제발표자, 토론자 총 5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제102회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

충북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임금·승진·복리 부족 등 문제 분석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

충북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계약 향상 방안분석 결과 공정한 인사·보상체계 확립, 경력개발 체계 강화 등 개선 방향 제시

충북의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4명 중 1명이 이직을 고민한다. 보상과 성장의 불균형, 신뢰의 단절은 복지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유응모와 충북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회장 안태승은 제102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열고, '충청북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계약 향상 방안'을 주제로 제도적·조직적 해법을 모색했다. 주제발표는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제선 교수가 맡았으며,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수현 수석연구원, 다하주간이용센터 최은희 원장,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오영환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이 맡았다. 이번 논의는 종사자가 신뢰받는 조직만이 이용자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다는 현장의 메시지를 다시금 확인한 자리였다. 나아가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 곧 장애인의 삶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편집자주>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제선 교수

서론

최근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부터 2041년까지 매년 약 700명의 장애인 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낮 동안 장애인에게 보호와 활동을 제공하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보호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던 이들 기관은 이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전문적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명칭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로 변경되며, 그 정체성과 역할이 한층 명확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는 이 계획의 제5차 비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이며,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론적 배경

이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종사자의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이다. 심리적 계약은 조직과 구성원 사이의 암묵적인 기대와 의무에 대한 인식으로, 공식적 근로계약서에 담기지 않는 심리적 약속을 의미한다.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낄 경우, 종사자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낮아지고, 성과 저하나 이직 의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심리적 계약이 잘 유지될 경우, 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충청북도 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제한된 복지제도, 과중한 업무와 높은 감정노동 속에서 부족한 보상체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직무소진과 이직률 상승을 불러오며,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심리적 계약의 문제는 단순히 인사관리의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낮 시간 동안 장애인에게 보호와 다양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신체·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의 경

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사회 내 통합적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인프라이기도 하다.

이 시설은 1993년 광주 엠마우스 복지관에서 시작되어 1996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5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로 운영이 이관되었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이며, 상담·치료·훈련을 비롯해 일상생활, 여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정의된다. 시설은 최소 66㎡ 이상의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장애인 3명당 1명의 재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주간이용시설은 2013년 558개소에서 2024년 849개소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은 부족하다. 충청북도의 경우 등록장애인은 약 9만 6000명, 그중 발달장애인은 1만 2000여 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하지만, 시설은 26개소에 불과해 대기자가 많고 지역 간 불균형이 크다.

이처럼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심리적 계약은 시설의 성과와 직결된다. 심리적 계약은 1960년대 Argyris의 개념에서 출발해 Rousseau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공식적 계약 이면에 존재하는 상호 기대와 신뢰의 약속을 의미한다. 기대가 충족되면 종사자는 만족과 몰입이 높아

지고, 반대로 불이행을 지각하면 불만과 이직 의도가 증가한다.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계약의 이행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노동 강도가 높거나 조직 내 리더십, 문화적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계약 위반이 빈번히 발생한다. 충청북도의 경우 소규모 시설과 민간위탁 운영이 많아 인사·정서적 지원이 취약하고, 체계적 진단과 교육 시스템이 부족해 조기 경보나 사후 회복이 어려운 현실이다.

연구 결과

이번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심리적 계약 인식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종사자들은 입사 당시 조직의 약속을 높게 평가했지만, 현재 그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낮았다. 특히 고용 안정성은 만족도가 높았으나, 보상과 승진, 임금, 복리후생 등 성장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불만이 두드러졌다. 성과와 노력에 비해한 보상, 임금 인상, 승진 기회, 복리후생 모두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저하로 이어졌다. 조사에서 종사자들의 정서적 몰입과 소속감은 높았지만, 조직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이나 충성심은 낮

아, 조직에 머무르는 이유가 필요에 의한 선택인 경우가 많았다. 직무만족도는 안정성과 흥미, 자율성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승진 기회와 보수 적정성, 평가 공정성 등에서는 불만이 두드러졌다. 서비스 품질은 비교적 높았으나, 근무시간 외 대응과 시설 환경 개선은 개선이 필요했다. 공감만족도 조사에서는 직업적 자긍심은 높았지만, 개인적 성취감과 삶의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직 의향 조사에서는 21.3%가 이직을 고려했으며, 낮은 임금, 발전 전망 불투명, 복리후생 부족, 과중한 근무환경과 소진이 주요 이유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상과 성장의 불균형, 낮은 인정감, 공감피로의 누적이 심리적 계약 위반 인식을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결론 및 제언

김제선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의 심리적 계약을 강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공정한 인사·보상체계 확립이다. 성과와 임금, 승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보상 가이드라인을 안내함으로써 조직과 종사자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경력개발 체계 강화다. 개인별 학습계획 수립, 교육 시간 보장, 멘토링

과 수퍼비전 확대를 통해 종사자가 '조직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다면평가와 피드백 의무화를 통해 평가 불신을 줄이고, 결과가 실제 인사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복리후생과 심리적 안전망 강화다. 건강관리, 심리상담, 가족돌봄 등 선택형 복지제도 도입과 사례 로테이션, 사후 토론, 업무와 삶의 경계 설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감피로와 소진을 예방해야 한다.

다섯째, 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실무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와 이용자 가족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심리적 계약은 단순한 조직관리 개념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며, "종사자가 신뢰받는 조직만이 이용자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형 복지현장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서 출발하며, 종사자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곧 장애인의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임을 이번 연구는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보상·성장·인사 불균형, 심리적 계약 위협”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수현 수석연구원



정수현 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종사자의 심리적 계약을 '조직과 개인의 상호 신뢰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심리적 계약이 무너지는 주요 요인으로 불투명한 인사관리, 제한된 성장

기회, 보상체계의 불균형을 꼽았다. 이어 "심리적 계약은 단순히 복지시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몰입을 위해선 공정한 보상체계, 역량 기반 경력관리, 관리자 리더십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원은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차원의 네트워크와 협력체계 속에서 인사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종사자 간 학습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와 문화가 함께할 때 심리적 계약 충족”

다하주간이용센터 최은희 원장



최은희 원장은 이번 연구가 충청북도 내 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계약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위반 요인과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장 실천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종사자들의 불만이 보상·복리후생·성과보상·승진 기회에 집중돼 있다

는 점에 주목해 "단순한 처우 문제를 넘어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가 '경쟁 중심'이 아닌 '학습과 공유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하는 기관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관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상호 학습 문화가 종사자의 심리적 계약 충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회 차원의 취업규칙 정비, 노무 자문 지원, 시설장 리더십 교육, 공감과 지지 문화 조성 등을 실천적 과제로 제시했다. "심리적 계약은 제도와 문화가 함께 작동할 때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리적 계약은 복지체계 지속가능성의 핵심”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오영환 부장



오영환 부장은 주간이용시설 종사자들의 현실을 "수요는 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처우와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낮은 임금과 연차 사용의 제약, 기관 간 처우 격차, 정서적 소진, 형식적인 교육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종사

자가 안정감을 느껴야 서비스의 질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간이용시설 종사자가 담당하는 역할이 돌봄·활동·교육·가족상담·도전행동 대응까지 광범위하지만, 그 전문성에 비해 보상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리적 계약을 강화하기 위해 그는 조직 차원의 가치 공유, 관리자 인식 개선, 상담 및 회복 지원제도 마련, 도 차원의 임금·인력 기준 표준화를 제언했다. 오 부장은 "종사자의 행복이 곧 이용자의 삶의 질로 이어진다"며, "심리적 계약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복지광장



박 광 선

청주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어느 겨울밤, 추위 속에서 얇은 옷차림과 슬리퍼를 신고 거리를 떠도는 청소년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흔히 그들을 '가출청소년'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표현만으로는 그들의 현실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 단순히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무게가 얹혀 있었고 더 이상 집이 보호와 안정을 주지 못했기에 거리로 내몰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밀려

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정박청소년'이라 부른다. 이 명칭에는 책임을 회피한 '아이'가 아닌, 보호받지 못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가정박청소년의 삶은 녹록지 않다. 가족 갈등, 학대, 빈곤,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난 청소년들은 안전한 잠자리와 따뜻한 한 끼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범죄나 착취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학업이 끊기고, 정서적 불안은 깊어지며, 자존감은 무너진다. 이 시기를 방치하면 청소년들은 사회적 위험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때 손을 내밀어주는 곳이 바로 '청소년쉼터'다. 쉼터는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사회적 보호망이자 따뜻한 울타리다. 무엇보다 '안전'이 확보된다. 편안한 잠자리와 식사, 위기 상황에서의 보호는 아이들이 삶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다. 그러나 쉼터의 역할은 단순한 보호에 머물지 않는다. 심리상담과 정서지원, 검정고시 준비, 직업훈련과 자립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다.

쉼터에서 청소년들은 처음으로 '존

중받는 경험'을 한다. 집에서는 상처받고 거리에서는 외면당했던 아이들이 쉼터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누군가 자신을 믿고 존중해준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삶을 이어갈 힘이 된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이 쉼터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해 나간다.

청소년쉼터의 존재는 사회 전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정박청소년을 방치하면 이들은 쉽게 사회적 위험군으로 전락한다. 반면 쉼터를 통해 회복한 청소년들은 학업을 이어가거나 직업을 얻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구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와 빈곤의 악순환을 막는 사회적 예방효과로 이어진다. 결국 청소년쉼터는 '개인의 회복'을 넘어 '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쉼터는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은 한정적이다. 쉼터를 찾는 청소년에 대한 낙인 또한 큰 장벽이다. 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 지역사회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인

식 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문제아'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자녀'로 바라볼 때, 쉼터는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가정박청소년에게 쉼터는 단순한 임시 거처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점이다. 차가운 거리에서 외로움에 떨던 청소년이 쉼터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상담을 통해 마음을 열며, 미래를 계획하는 순간 희망은 다시 피어난다. 그 희망은 청소년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따뜻한 쉼터를 내어주고 있는가?" 청소년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다. 그곳은 아이들이 다시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공간이다. 가정박청소년이 쉼터에서 희망을 만나고, 그 희망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오늘도 누군가는 쉼터의 문을 두드린다. 그 문이 언제나 따뜻하게 열려 있기를,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웃음을 되찾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가정박청소년, 쉼터에서 희망을 만나다

복지칼럼

디지털 전환과 AI 적응이 필요한 시기



김 군 태

비영리마케팅연구소 복지포럼 대표

여름 장마처럼 각종 서류가 쏟아지던 첫 복지관의 행정 업무를 기억한다. 결재 서류는 바닥에서 책상 높이까지 탐처럼 쌓였고, 수백 장의 일지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일이 많아 메마른 인주를 재사용하기 위해 식용유를 채워가며 날인을 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행정 서류는 연말 마감 시즌에 문서철로 묶여 창고로 들어가면, 수년 뒤 평가 시즌이 올 때까지 존재조차 잊혀곤 했다.

처음 배우는 행정은 항상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과거 복지관의 역사 자료를 찾기도 힘들었다. 신입 직원이 과거 기록을 찾는 방법은 오직 컴퓨터에 저장된 전임자의 한글(hwp)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사회복지계에도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들이 생겨났다. 서버에 저장된 행정 문서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 그러나 평가를 대비해 결재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책철을 하는 문화는 변함이 없었고, 디지털 전환은 업무의 중박이라는 공식이 생겨났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시스템을 대체해야 했던단, 새로운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을 둘 다 신경써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팬데믹을 거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 환경이 과거와 많이 바뀌고 있다. 이제 디지털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시민들은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에도 기다림 없는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한다. 절차를 거쳐야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참지 않고 민원으로 바로 이어진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내가 받던 동일한 서비스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시민의 작은 불편조차 용인되지 않는 시대다. 이런 환경에서 더욱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의 업무수행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혹시 아직도 종이에 도장을 찍는 서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디지털과 AI를 받아들일 때가 다가왔다. 60대 시민도 스마트폰과 디지털이 익숙한 시대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미룰 일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종이 위주로 운영되던 업무 흐름을 디지털과 AI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휴가 신청이나 월 실적을

모바일 폼으로 받아 서면으로 발생하는 노력을 줄이거나, 문서를 팀 공유 클라우드에 보관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혹은 한글(hwp) 대신 워드와 엑셀로 양식을 바꿔두면 앞으로 활용할 AI가 기관 문서를 더 쉽게 이해한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미래에 AI 분석으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디지털 기반으로 업무 양식과 데이터 축적 방법을 변경하면 전반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한다.

예컨대 시민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곧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일정이 자동 등록되며, 참여 기록은 일지 문서로 변환되고, 실적은 보고서로 연결된다. 회의록은 AI가 자동으로 작성해 공유되고, 공문은 접수와 동시에 각종 캘린더에 일정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업무를 자동화하면 행정에 쓰이던 시간을 줄이고, 사회복지사가 시민을 만나는 본질적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관 내부 일지 양식부터 시작하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새로운 도구로 떠오르는 AI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다. 이미 현장에서도 파부로 느끼고 있었지만, 젊은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업무에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 기관 직원교육의 핵심 주제는 인공지능 챗GPT 활용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 사회복지 현장에서 1300회 넘게 홍보와 AI 강의를 진행하며 만난 수많은 현장 사회복지사들도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윤리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능숙하게 인공지능으로 사업 계획서와 일지를 제작하고, 생성한 이미지로 주민의 초상권과 인권을 지키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현장 적용 사례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말해 준다. 사회의 변화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준비된 기관과 준비되지 않은 기관의 차이는 앞으로 더욱 벌어지리라는 것이다.

결국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물결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우리 조직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바꿀 것인지 정하고, 작지만 구체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관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 격동하는 변화의 흐름에서 사회복지 현장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5년 뒤의 사회복지 현장은 지금과 정말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실천하자. 미래 세대 사회복지사와 외면받지 않을 사회복지 현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박 윤 희

사랑의교실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우리는 언제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집에서는 가족과, 직장에서는 동료와, 거리에서도 낯선 사람들과,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한다. 결국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수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함께해줄 때 따뜻한 소속감을 느낀다. 그러나 관심을 받지 못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이 고개를 든다. 존중받는 순간에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차오르지만, 무

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한없이 작아지고 불편해진다.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는 뒤처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이 불타오르고, 내가 원하는 관심이 다른 이에게 향할 때는 질투가 스며든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디며 서로 의지할 때는 뜨겁고 진한 연대감을 느끼고, 나의 노력이 인정받을 때는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부심이 생겨난다.

기쁨이나 슬픔을 나누고 싶을 때 상대가 무관심하다고 느껴지면 외롭고 공허한 감정이 밀려오지만, 작은 배려와 이해를 받는 순간 다시 따뜻함과 평안을 경험한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는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낼 때는 환영받는 기쁨과 함께 커다란 희열을 맛본다.

이처럼 사회적 감정들은 우리를 흔들고 성장시키며, 세상을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간다. 결국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울고 웃으며,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좋아할까? 나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일까?

내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마흔 무렵이었다. 아이들을 키우며 작은 학원을 운영하다가, 뒤늦게 사회복지사가 되어 일한 지 이

제 5년이 되어간다.

돌아보면, 과거의 나는 사람을 다 안다고 믿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이런 마음으로 한 걸 거야',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 이유는 분명 이것 때문일 거야'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곤 했다. 그러다 그 해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쉽게 상처받고, 상대와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기도 했다. 그때의 나는 스스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왜 생긴 걸까?

나는 이 변화를 '사람을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방법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한다.

첫째, 그 사람을 잘 바라보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웃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머리가 긴지 짧은지, 안경을 썼는지 벗었는지... 이런 작은 관찰이면 충분하다. 관심은 '잘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마음속에 담는 일이다. 둘째, 나와 다름을 인정하라.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다. 그의 생각과 감정은 나의 기준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를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그의 마음이 나와 같기를, 그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지 말자. 대신 그와 나란히 견고 있음에 만족하자. 우리는 서로 다르기에,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셋째, 내가 존민해져야 한다. 사람을 좋아하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온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노력하고 인정받으며, 내 안을 채워갈 때 나는 충만해진다. 내가 충만할 때 비로소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

사람을 좋아하는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잘 바라보고, 다름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 결국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곧 삶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 삶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듯, 앞으로도 나는 이 방법을 기억하며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이다.

사람을 좋아하는 방법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최근 뉴스를 통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접할 때마다 “나도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이 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먼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증거확보를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파출소 등에 폭행을 이유로 신고를 하여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

가정폭력과 임시조치

고 반복된다면 경찰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나 직장 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 연락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내용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서 처리되는 경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임시조치와 유사하지만, 법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변의 위험이 느껴진다면, 법원에 ‘신변안전조치’를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치는 경찰의 신변 보호, 주거지 비공개, 긴급 구조 요청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와 법적 조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인사동정

- 충북아동복지협회
▷ 회장 이종민 / 10월 16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사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봉사단

‘나눔의 인연 봉우회’,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소속 ‘나눔의 인연 봉우회’(단장 유영천, 이하 봉우회)는 지난 10월 5일, 12일, 19일 청주시 중앙공원에서 취약계층 약 7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한 봉사단원은 “따뜻한 식사를 통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이 느껴지는 활동”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나눔의 인연 봉우회’는 2010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무료급식을 통해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만/평

사냥

이창신 www.bokmani.com



이러면 안 되겠지만, 재위탁 심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사단법인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 2026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 대학생 총 40명
- * 지원제외: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최근 3년 이내 아름다운재단 타지원사업 참여자, 2026년 1학기 복학 예정 휴학생
- 지원연령: 21~29세(2006~1998년생)
- 접수기간: ~2025. 11. 6.(목)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지원내용: 연간 최대 500만원(자기계발 및 학업생활보조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커뮤니타활동 지원 등
- 참고: gwon.net

[말알복지재단, 장애인의 자립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희망 Dream 프로그램 공모전']

- 공모대상: 장애인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포함)
- 공모주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장애인 디지털 역량 자립 도모),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확대)
- 사업기간: 2026년 1월 2일 ~ 2026년 10월 31일(10개월)
- 사업예산: 기관/단체당 5000만원 이내,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기간: ~2025. 11. 9.(일)
- 신청방법: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 참고: www.miral.org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 12월 31일(상시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복지정보 제공

-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한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www.043w.or.kr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요서비스 및 제공기관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T. 043-716-2168~9)

[바보의나눔, 2025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실질적 여성가장(신청기관에서 1개월 이상 사례관리, 가정 방문중이거나 향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 과정에 동의한 개인)
- 지원예산: 1인당 최대 400만원
- 지원분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내용
- 신청기간: 신청월 5일 18시 이후 ~ 익월 5일 18시(12월 5일까지 매월 접수)
- 사업기간: 신청월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사회복지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제출서류 구비 및 온라인 접수
- 참고: babo.or.kr

[금순한부모상담소,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신청안내]

- 지원대상: 7세 이하자녀 양육 한부모 및 청소년 가정, 양육의지가 있는 한부모 및 청소년 입산부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내용: 긴급 위기지원(긴급 생계비, 연체 공과금, 월세 마납금, 임신·출산지원비, 긴급 의료

- 비, 양육 물품비 등)
- 사업기간: 2025년 1월~12월
- 신청방법: 홈페이지(kaumsncc.com) 내 온라인 신청
- 참고: www.miral.org

[라이프오브더칠드런, (강원·충청·세종·제주 지역)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아동, 다문화 및 이주노동자 가정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그 외 소외계층 아동
- 지원자격: 현재 타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아동, 협력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기관 추천을 받은 아동)* 개인 신청 불가
- 지원내용: 교육비 월 10만원 씩 1년, 최대 3년 지원, 수능 교과과정 및 예체능 관련 교육기관 비용지원(온라인 수강료 가능), 직업능력 개발 관련 기관 비용 및 특수교육 비용 지원
- 접수기간: 상시(예산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 참고: lifeofthechildren.org

[우리금융미래재단, 위비프렌즈와 함께하는 위비랑 돌잔치]

- 사업대상: 전국 아동양육시설 내 만 1세 생일을 맞이하는 아동(2024년 1~12월생)
- 지원인원: 총 50명
- 사업기간: 2025년 4~12월 (총 9개월)
- 지원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지원금 100만원), 찾아가는 돌잔치 지원, 간식비 지급, 선물키트 제공
- 신청기간: 사업 기간 내 상시 모집
- 신청방법: 구급폼으로 신청서 제출
- 참고: www.woorifuturefoundation.or.kr

[함께하는 사랑방,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국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 지원내용: 청소년 결연 지원, 생계·의료·교육·주거·심리정서 지원, 긴급한 위기상황 극복 지원, 온라인모금캠페인 지원
- 신청기관: 아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기관(대상자 개인신청 불가)
- *지원금 전용기관제와 개설 및 집행 가능 기관
- *사례관리 실무기관
- 지원기간: 연중 상시(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withgo.or.kr) 내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페이지 접수 및 신청서 작성/이메일 제출
- 문의: 지역별 문의처상시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234-0840

- ▶가족 웰다잉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834-3411

- ▶초등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855-1090

- ▶행정업무 보조
관리센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236-0111

- ▶어르신 선택 및 말벗
관리센터: 충주시립노인요양원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851-3211

- ▶안내 및 예진표 작성 보조
관리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270-5931

- ▶어르신 식사 배달
관리센터: 오송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1~11.30
전화번호: 043-234-5479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대상

어린이 2012. 1. 1. ~ 2025. 8. 31. 출생자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일정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9. 22.(월) ~ 1회 접종 대상자 9. 29.(화) ~
임신부	9. 29.(월) ~
65세 이상	75세 이상 10. 15.(수) ~ 70 ~ 74세 10. 20.(월) ~ 65 ~ 69세 10. 22.(수) ~

→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백신

37개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자는 2회 접종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사전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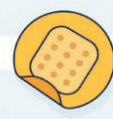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